

# 빛투·예탁금 '역대 최고치'... 유동성의 힘 연말밸리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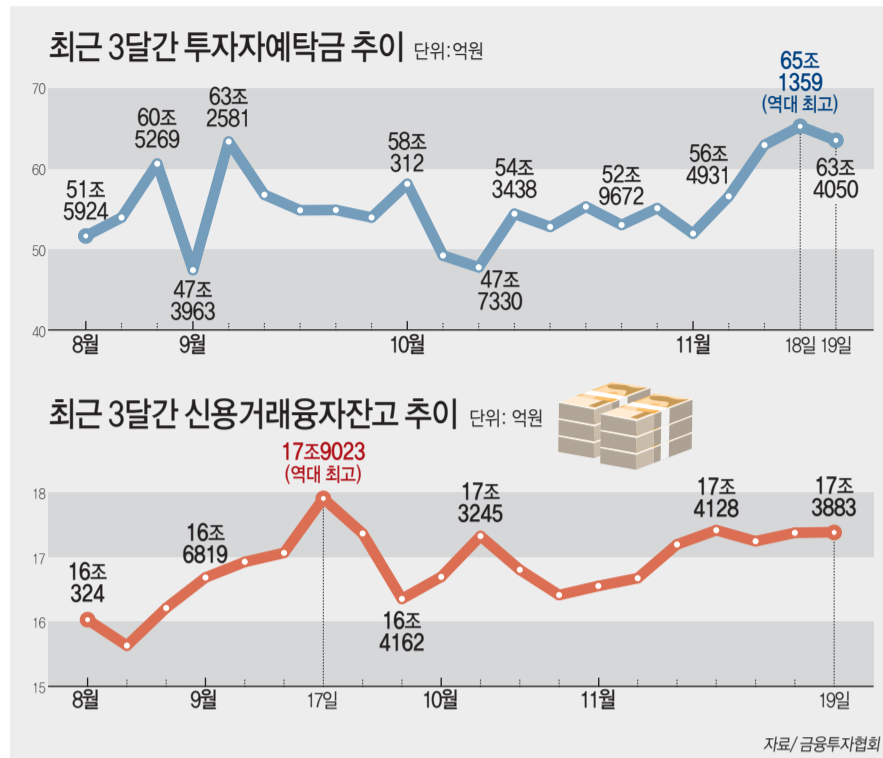
신용거래용자잔고 18조 눈앞  
예탁금도 최고 65조까지 늘어  
외인 컴백, 5.8조 어치 순매도  
코스피지수 연중 최고점 기대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였던 증시 대기  
자금이 다시 늘고 있다. 지수가 우상향  
을 지속함에 따라 신용거래용자잔고도, 투자  
자예탁금도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것. 그만큼 주식투자 대기자금이 많다는  
의미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올해 예  
정됐던 대형 공모주 기업공개(IPO) 일  
정이 끝난 후 횡보장 속에 소폭 감소를  
보였던 신용거래용자잔고는 조만간 18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  
이란 전망이 나온다. 투자자예탁금은 이  
미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 ◆빛투·예탁금 모두 연고점 눈앞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신용거래용자는 17조3884억  
원을 기록했다. 17조3776억을 기록했  
던 지난달 16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다. 지난 9월 17일 역대 최고치였던 17  
조9000억원도 눈앞에 됐다.

이대로라면 조만간 18조원 돌파가 예  
상된다. 일반적으로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면 신용거래용자잔고의 증가  
세가 두드러진다. 주가가 상승할 것으  
로 예상되던 자연스레 빛투(빛내서 투  
자)에 뛰어드는 개인투자자가 많아진  
다는 얘기다.

주식 매수를 위한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지난 19

일 투자자예탁금은 63조405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전엔 65조1360억원까  
지 치솟으며 종전 최대치(63조2582억  
원)를 2조원 가까이 넘어서기도 했다.  
하루 만에 감소폭을 보였지만 이달 들  
어서만 10조원가량 늘어나며 여전히 높  
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0조원에 불과했던 올해 초보다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패닉 이후 시  
작된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유입세를 증  
명하는 대목이다. 코로나19 백신에 대  
한 기대감과 함께 미국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견하며 달아오른 연  
말 증시 분위기가 수치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 ◆유동성vs상승피로...연말 증시 향방 은?

외국인의 컴백과 신용거래용자잔고 증  
가, 투자자예탁금 증가 등으로 막대한  
유동성이 증시를 더 끌어 올릴 것이라  
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김지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코로나  
19 백신이 개발되며 내년 국내 경제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완  
만한 상승 흐름이 기대된다"며 "저금리  
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이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꾸준히 유입되며 과거보다 일평균거래  
대금을 보이는 중"이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달 지지부진했던 코스피  
지수는 연중 최고점을 눈앞에 됐다. 전

거래일(20일) 2553.50에 거래를 마치며  
이달 들어 12% 이상 뛰어올랐다. 사흘  
연속 연중 최고점을 쓰는 중이다. 증시  
역사상 코스피지수 최고점은 종가 기준  
2018년 1월 29일 기록했던 2598.19다.

외국인 중심의 장세다. 이달 들어 개  
인과 기관은 양대 주식시장(코스피+코  
스닥)에서 각각 4조6358억원, 5153억  
원을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인 홀로 5조  
8902억원 어치의 주식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하지만 최근 가파르게 오른 지수를  
보며 증시가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상승으로 인한  
피로가 개인의 유동성을 짓누를 수 있  
다는 분석이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달러  
약세 기조로 신종류 자산 선호가 높아  
져 국내 주식시장을 향한 외국인 자금  
유입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라면서도 "코스피가 기술적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는 점은 부담이다. 양호한  
수급과 펀더멘털(기초체력) 개선 기  
대에도 지수 상승 속도는 다소 둔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 바이든 친환경 정책에 '해상풍력株' 장밋빛 전망

### metro 관심종목 삼강엠엔티 외

삼강엠엔티 이달들어 25.08% 올라  
제조업 씨에스윈드도 26.37% 상승  
美 정책적 호재에 '장기적 성장' 평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  
약 가운데 하나였던 친환경 에너지 정  
책에 관심이 쏠리며 국내 해상풍력 기  
업도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 시장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 미국  
시장까지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이 대상  
이다.

해상 풍력발전 사업은 한국판 뉴딜  
중에서도 그린뉴딜을 대표하는 사업이  
기도 하다. 삼강엠엔티와 씨에스윈드가  
최우선주로 꼽히는 가운데 세아제강,  
유니슨 등도 수혜주로 지목된다.

국내 증권가에선 바이든 정권이 들어  
서면 풍력 등 미국 재생에너지 시장은  
기존 예상을 뛰어 넘는 고성장이 예상

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환경분야 정책을 강  
조하며 적극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 신  
재생 에너지 정책 강화 기조를 약속했  
다. 앞으로 4년 동안 청정에너지 인프라  
에 2조 달러를 투자하고, 2035년 탄소배  
출 제로 계획을 발표하며 발전용 터빈 6  
만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기대감은 국내 증시에  
도 반영됐다. 해상풍력 개발과 관련된  
수출 기업들이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들의 오름세는 당분간 계  
속될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정하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바이든 환경 정책은 미국 해상풍력 시  
장을 단기간에 엄청난 속도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한국의 해상풍력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여전히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므로 수출 중심 기업에  
주목하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삼  
강엠엔티와 씨에스윈드, 세아제강과 유  
니슨을 후보군으로 꼽았다.

미국의 친환경 정책에 더해 국내에서

진행 중인 그린뉴딜 사업도 긍정적이  
다.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국  
내의 해상풍력 단지 규모는 약 13.6GW  
수준으로 이 중 일부가 내년에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  
내의 해상풍력 관련 업체들이 관련 부  
품, 구조물, 전선 등을 납품하게 될 가  
능성이 크다.

삼강엠엔티와 씨에스윈드의 약진이  
눈에 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1만  
5150원에 거래됐던 삼강엠엔티는 전  
거래일(20일) 1만8950원에 거래를 마  
쳤다. 이달 들어 25.08% 뛰었다. 글로벌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시장에서 독보적  
인 위치를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다. 해상풍력 타워 제조업체 씨에스윈  
드 역시 26.37% 뛰었다. 정책적 호재에  
힘입어 장기적으로도 꾸준한 성장을  
할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들이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삼강  
엠엔티에 대해 "국내에 설치될 해상풍  
력 하부구조물 시장에서 경쟁력이 더욱

빛나고 있다"며 "해상풍력을 건설하려  
면 반드시 삼강엠엔티와 협력해야 할  
정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유럽의 해상풍력 확대는 씨에  
스윈드의 성장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씨에스윈드는 영국과 베트남  
에서 유럽형 해상풍력 타워를 납품하고  
있다. 그는 삼강엠엔티와 씨에스윈드의  
목표주가로 각각 2만4000원, 15만원을  
제시했다.

아시아 해상풍력 시장의 성장이 고스  
란히 이 두 기업에 반영될 것이라 긍정  
적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박찬솔 SK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시  
장에서 아시아권 해상풍력의 발전 규모  
는 지난해 24.1% 수준에서 2030년까지  
약 55%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  
다. 그러면서 "삼강엠엔티는 해외 영업  
확대를 위해 올해 씨에스윈드와 업무협  
약(MOU)을 맺으면서 해외 입찰에서도  
경쟁력을 높였다. 씨에스윈드와 동반  
성장할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 조감도. /대림산업

### 대림산업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 브랜드 파워로 100% 분양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e편한세상 순  
천 어반타워' 아파트가 단기간 100%  
분양을 완료했다.

22일 대림산업에 따르면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는 16~19일 청약 당첨자  
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했으며, 이후  
예비 당첨자 계약을 거치며 전 가구가  
주인을 찾았다.

앞서 1순위 청약에서 2만개가 넘는  
청약통장이 몰리며 순천 역대 최다 접  
수 건수를 기록해 지역 청약 역사를 새  
로 쓴 바 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  
르면 지난달 28일 진행된 1순위 청약 결  
과 41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2  
만1920건의 청약통장이 몰리며 평균  
53.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분양 관계자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순천에서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브랜드 파워와 우수한 상품이 조화를  
이뤄 고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청  
약 마감 후에도 문의가 끊이지 않았었  
다"고 전했다.

한편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는 전  
남 순천시 조곡동 634번지 일원에 들어  
서며, 지하3층~지상 최고 25층, 10개  
동, 전용면적 84~112㎡ 총 632가구다.  
입주 예정일은 2023년 2월이다.

/정연우 기자

## 서울·인천 민간임대 등 전국 3535가구

### 분양캘린더

11월 넷째 주, 대구에서 '대구테크노  
폴리스 에미지 더센트럴'과 강원에서  
'원주 대원칸타빌'의 1순위 청약 접수  
가 진행된다.

22일 부동산전문리서치업체 리얼투  
데이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에는 전국  
7곳에서 총 3535가구(오피스텔·임대·타

운하우스·테라스하우스 포함, 도시형  
생활주택·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  
가 실시된다. 이어 건분주택 개관도 6곳  
이나 준비 중이다. 서울 구로구에서 '고  
척 아이파크' 민간임대와 경기 오산시  
에서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 등이  
본격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10곳, 계약은 19곳 사  
업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 yw964@

### <11월 넷째 주 분양캘린더(11월23~29일)>

구분	시기	위치	단지명	총가구수	일반분양	전용면적
청약 접수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 D플레이스(%)	96	96	19-25
	24일	대구 달성군	대구테크노폴리스 에미지 더센트럴(\$)	894	894	99-152
		대구 중구	헤링턴 플레이스 반월당 2차(\$)	419	419	84-108
		대구 북구	더샵 프리미엄(\$)	300	300	70-84
	25일	경북 성주군	성주 스위트엠 엘크루	286	286	77-84
강원 원주시		원주 대원칸타빌(B-2블록)	907	907	76-84	
충남 천안시		이안 그랑센텀 천안	816	688	59-84	
서울 구로구		고척 아이파크(*)	2,205	2,205	64-79	
건분 주택 개관	27일	서울 구로구	힐스테이트 신도림역 센트럴	463	463	18-29
	경기 오산시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	2339	2339	65-173	
	인천 중구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1445	1445	62-84	
	경북 포항시	힐스테이트 포항	1717	817	59-84	
	경북 포항시	포항 양학 신원아침도시 퀘렌시아	659	104	84-109	

\*건설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상복합, &=민간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